

#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나타난 사회참여적 특징과 현대 기독교적 적용

## Characteristic of the Social Participation in the 16th Century and Its Implication to Modern Christianity

봉원영  
삼육대학교 신학과

Won Young Bong(bong10@syu.ac.kr)

### 요약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발생했던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 안의 부패와 모순, 성경신학적 문제들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성경과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교회 안”만의 개혁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시작된 종교개혁은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6세기에 발생했던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회복지개혁적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현대 기독교적 입장, 특별히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이신칭의와 만인사제설 교리가 루터 종교개혁의 사상적 토대였음을 확인하였고 신앙약자와 여성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이 루터의 종교개혁적 특징임을 살펴보았다. 루터의 사회복지 정책으로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호활동, 교육사업, 그리고 경제 정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루터의 사회복지개혁적 특징들을 계승하여 발전시킬 사항으로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적 복지실천, 교회의 올바른 실천적인 사회책임 이해, 지역공동체를 위한 실제적 복지실천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종교개혁 | 사회복지개혁 | 사회적 약자 | 선교적 교회 |

### Abstract

The Protestant Reformation that erupted 500 years ago has influenced all aspects of society and have become a crucial stepping stone to modern times from the Middle 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ow the reform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welfare revealed in the process of the Reformation in the 16th century and how they apply to the Modern Christianity, especially from the view of the missional church. Therefore, in the main body, the two doctrines of Justification by Faith only and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 were based on the Luther's Reformation were examined. A researcher confirmed that his Reformational characteristics concerned about second-class citizens and disadvantaged such as the weak faith, women, and the social situations were considered all the time in his Reformation. There were three characteristics of Luther's social welfare reforms: relief activities, education businesses, and economic policies. In addition, a researcher discussed some suggestions that the missional church can apply to its ministry for creating a healthier community.

■ keyword : | Reformation | Social Welfare Reforms | Disadvantaged | Missional Church |

## I. 서론

2017년(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권위, 권위주의적 성직자중심주의 등에 대하여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예수(*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이란 슬로건을 가지고 성경과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자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린 지 정확히 5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교회가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함으로 인해 평신도들을 성경에 대한 무지와 미신적 신앙으로 이끌었고, 재정적인 부패와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은 면죄부 판매로까지 이어져 결국은 1517년에 종교개혁이 발발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중세 교회 안에 남아 있던 비성경적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성경적인 교리와 예배사상을 회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세교회의 모든 인간적인 전통과 권위는 사라지고, 성경중심적인 신앙과 생활이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었다. 이로써 교회안의 계급 구조적인 사회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평등과 자유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을 단순히 신학적 개혁으로만 이해하기에는 그 폭이 너무 좁다. 루터의 개혁은 신학적인 개혁일 뿐만 아니라, 타락한 교회생활, 타락한 국민생활의 실제적인 개혁이었기 때문이다[1]. 그러므로 그것은 단순히 교회내부적인 구조의 혁신적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사회구조의 전면적 개혁을 포함하는 복지구조의 틀을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2]. 실제로 김주한(2002)이 지적한 것처럼, 루터의 윤리적 관심은 정치, 사회적 조건과 대단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3]. 그런 의미에서 Delthey(1972)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중세를 넘어선 근대적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당시 독일의 사회와 정치에 기독교의 가치들을 처음으로 관통함으로써 독일 문화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4].

독일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근세기로의 전환점에 있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러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 교회사나 사상사의 측면에서 루터나 멜란히톤, 칼뱅 등 몇몇 주도적인 종교개혁자들에 초점을 맞추거나, 종교개혁 시기에 활발히 발발했던 농민전쟁 등에 대한 운동사 위주의 연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5]. 이러한 연구들이 종교개혁의 의미와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의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현대적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500년 전에 발생했던 루터의 종교개혁적 가치들 가운데 사회개혁적 부분을 현대 기독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 기독교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Church)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질적 연구방법론의 문화기술적 연구방식과 탐색적 연구방법론의 역사연구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초반부에 선행연구를 통하여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의 시대적 배경을 확인하고 루터가 이끌었던 종교개혁의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발생하도록 만들었던 보다 직접적인 원인들을 이해하고,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드러났던 특징들의 이유들을 분명히 발견하도록 할 것이다. 이어서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드러났던 사회개혁적 부분들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된 관심부분인 선교적 교회가 이러한 사회개혁적 특징들을 어떻게 현대의 기독교에 접목할 수 있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런데 실제로 16세기의 종교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현대의 선교적 교회론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 적용을 논의하기 이전에 그럴만한 분명한 이유들이 논리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종교개혁과 선교적 교회와의 공통점을 분석하므로 이 둘이 가지는 공유된 가치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 II. 루터의 종교개혁 이해

### 1.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적 배경

종교개혁이 중세시대의 종말을 알리고 새로운 시대로의 시작을 선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유럽의 15세기와 16세기는 그 종교개혁이 가능하도록 했던 사회적·정치적 조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홍주민(2007)은 당시 유럽의 상황들을 몇 가지로 열거한다[6]. 첫째, 대규모의 생계위기와 물질적 생존위기를 들 수 있다. 14세기 중반에 유럽에 창궐했던 흑사병으로 인해 발병 4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했지만, 15세기 후반부터는 인구의 증가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의 증가와 비례하여 생산물과 음식물이 공급량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서 상품의 가격폭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생존위기로 인해 기근에 처한 극빈자들과 농민들이 도시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둘째, 사회구조와 생산방식의 변화이다. 십자군 전쟁 이후 봉건제도의 붕괴와 함께 새로운 사회계급인 중산층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들은 상업과 무역으로 인해 자본을 형성한 다수로서, 그 이전까지 소수의 지배층과 다수의 피지배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피라미드 구조를 변화시켰다. 또한 농업 생산으로부터 상업과 무역의 시장지향적 생산으로 주된 생산방식이 이전되면서 자본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6].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야기된 농지의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 넓은 토지를 소유했던 영주들은 기계화를 촉진시켰다. 그 결과 산업이 발전하고, 협동조합과 은행들이 생겨났으며, 은행의 출현과 함께 신용제도, 지폐, 할인제도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 구조가 등장하였다. 이런 경제 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사회를 혼란 가운데로 몰아넣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개혁 등의 변화를 요청하게 만들었다[7].

셋째, 문예부흥운동(Renaissance)과 인문주의의 확산이다. 당시의 신학계에서는 자연을 통하여 우주와 보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신학은 일반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 성경과 같은 특별계시는 소홀히 여기게 하였다. 이에 반해 아우구스티누스가 특별계시를 강조하면서 은총의 신학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후에 존 윌클리프와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을 통해서 문예부흥 운동,

곧 인문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1096년부터 1291년까지 약 200년 동안 모두 여덟 번에 걸친 십자군원정은 동서방간의 문화교류를 가능하게 했고 건축과 음악, 회화 등에서 르네상스가 발생하게 되었다. 학문적으로는 인문주의(Humanism)가 발달하면서 헬라문화와 철학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생겨났고 그 과정에서 성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전으로 읽으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 에라스무스는 기독교 인문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는 인간의 본질을 찾고자 성경연구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 시켰으며 결국 이러한 성경에 대한 관심 증대는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인문주의 운동은 인간에 대한 연구의 길을 열고 성경에 대한 연구를 고양시킴으로 종교개혁에 공헌하였다.

넷째, 종교개혁의 전야였던 중세말기의 교회와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직자들의 성적인 부패였는데, 결혼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디모데전서 3:2, 12; 디도서 1:6)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직자들의 독신제도를 고착화시킨 중세교회 내의 성적인 부패는 매우 심각했다. 교회법에 따라 성직자들은 공식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으나, 1521년 칼 5세에게 제출된 보고서와 1522년 콘스탄트 주교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각각 “대부분의 교구 사제들과 여타 성직자들”과 “스위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대다수 성직자들”이 도덕적으로 헤이한 여자들과의 사실혼 관계를 밝히고 있다[8]. 이것은 당시 성직자들의 동거는 교회가 암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연했음을 의미했다[9]. 매춘 역시 당시의 필요악으로 간주되어 음양으로 묵과되고 있었다[10]. 또한 성직자들은 그러한 부적절한 사실혼 관계를 통해 얻은 자녀들에게 다른 직업과 함께 성직을 물려주는 부패적 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돈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물질중심주의를 빼놓을 수 없다.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중세교회가 시행했던 면죄부 판매 역시 그러한 생각의 발로였지만, 그 이면에는 면죄부를 파는 권한을 누가 가지는가, 결국 누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대한 문제였다. 따라

서 그러한 자격을 가지기 위해 성직을 매매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해졌다. 한 예로, 나이가 들어 사망시기가 가까워진 고위 성직자들의 자리를 두고 공공연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성직자의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서 늙으면 늙을수록 비쌌다. 고위직일수록 사망 등으로 인해 자리가 비게 될 경우, 그 아래 하위직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수록 교회는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었다. 또한, 교황 레오 10세는 이미 2개의 주교직을 가지고 있었던 호헨졸레른의 알버트(Albert of Hohenzollern)에게 마인쯔(Mainz)의 주교직을 제안하면서 금액을 흥정했고 결국 낙찰된 그 대가로서 그의 영토 내에서 8년 동안 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에 대한 수익금의 절반은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로 내도록 하기도 했다[11]. 그 외에도 농부와 사회적 지배계급과의 분쟁, 시민세력의 성장 등 다양하게 이 시기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나, 분명한 것은 이 시기에 많은 새로운 위기증후군과 분쟁의 가능성이 혼재했었다는 것이다[6].

## 2. 루터의 종교개혁의 특징

앞서 언급한 사회적, 정치적, 혹은 교회적 부패와 타락은 루터를 포함한 많은 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종교개혁의 결정적이고도 궁극적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당시 중세교회의 이러한 도덕적·윤리적 부패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우신예찬」을 기록했던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는 평생 중세교회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1524년에 있었던 의지의 자유에 대해 루터와 벌였던 논쟁의 경우를 보건데 그는 기본적으로 당시 중세교회적인 사상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당시 사회와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종교개혁의 근원적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11].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근원적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자신들의 주장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죽음을 무릎 쓰고라도 그들이 끝까지 종교개혁적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2.1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세교회와 성직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겸손과 청빈, 경건 등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야 할 교회와 성직자는 오히려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왔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그 문제에 대한 극단적 방법들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나 십자군 참여, 로마의 순례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중세교회가 처했던 강한 재정적 압박에 대한 교회 수익 창출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면죄부 판매는 당시 교회가 아무런 투자 없이도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수익원이 되었다. 1516년에 요한 텃셀(Johann Tetzel)이 성 베드로 성당 개축 자금을 위한 독일지역 면죄부 대사로 임명되었다. 그의 면죄부 판매는 루터가 사제로 있었던 비텐베르크 도시의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95개의 면죄부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하게 되었다. 루터의 입장에서 볼 때, 면죄부의 판매와 구입은 신자의 기본적인 삶인 회개의 과정과 유일한 죄의 용서자인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하여 진실한 회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과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근본적 원인은 그저 도덕적인 타락과 문제들 정도가 아니라, 당대의 교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인식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었다. 루터는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속해 있던 교회의 가르침과 예배와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발견하였던 것이다.

### 2.2 이신칭의론과 만인사제설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교회 내의 모든 계급구조의

종말을 의미한다. 루터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두 신학적 사상이 바로 이신칭의론(Justification by Faith alone)과 만인사제설이다. 중세교회는 의롭지 못한 인간이 의롭게 되고 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성례나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능동적인 의를 가르쳤다. 중세교회가 면죄부 판매를 시행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해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이신칭의론을 통해 기존의 이러한 이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를 강조했다. 이것은 인간이 구원의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외부적 도움이나 매개가 필요 없음을 의미했고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신과 소통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그의 이러한 이해는 만인사제설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만인사제설은 “모든 신자들은 그가 성직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직접,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것을 통해 루터는 성직자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점적 특권을 깨뜨렸으며 누구나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12]. 이 두 가지 신학적 교리는 루터의 종교개혁 전반에 걸쳐서 드러났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자유와 평등 개념을 심어주어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적 실천까지도 촉구하는 단초가 되었다.

### 2.3 신앙약자에 대한 입장

루터가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비텐베르크(Wittenberg) 신학부의 학장이었으며 루터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그를 동료교수로 불러들였던 안드레아스 보덴슈타인 폰 칼슈타트(Andreas Bodenstein von Karlstadt)란 인물을 빼 놓을 수 없다. 곧 그들은 서로의 종교개혁적 사상을 중심으로 동반자로서 함께 종교개혁 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루터가 자신의 95개조 면죄부 반박문과 종교개혁 논문을 계기로 교황청과 불화를 빚게 되면서 바르트부르크(Wartburg)에서 잠시 도피하고 있는 동안, 칼슈타트가 비텐베르크의 종교개혁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칼슈타트

는 다소 급진적으로 과격화된 종교개혁을 진행했고 그것은 곧 루터와의 결별을 가져오고 말았다. 결별의 원인은 종교개혁의 찬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실천방법을 둘러싼 전략적인 차원의 차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둘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둘 사이에 있었던 논쟁 중의 하나가 바로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에 대한 루터의 입장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약한 자들을 인내하고 고려하는 것이 형제사랑의 기본이라는 것이었다. 루터는 그런 사람들을 젓먹이에 비유하면서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젓을 잘 먹일 것을 당부하였다. 반면에, 칼슈타트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들을 더욱 올바르게 가르쳐서 즉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상숭배 문제 역시 루터는 즉각적인 성상파괴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성상을 당분간 허용하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고 이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칼슈타트는 이에 대해 이 문제를 즉시로 해결하지 않으면 신앙이 약한 자들이 오히려 우상숭배로 더 깊이 빠지게 되어 결국은 모두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둘 다 성상을 숭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것이다. 루터는 만약 우상이 사람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파괴의 방법은 강제적인 무력이 아니라 설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2]. 이 둘의 차이는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인용하는 성경에서도 드러나는데, 루터가 신약의 바울 서신서에서 성서해석의 기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칼슈타트는 구약의 신명기에서 율법수호의 명령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리하자면, 칼슈타트의 입장은 진리를 인식하고 아는 정도만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는 곳까지 이르러야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루터의 입장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계속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스스로 깨달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칼슈타트가 전통적 교회의 입장이라면, 루터는 현실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적 처방에 초점을 맞춘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church)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 2.4 교육에 대한 입장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공존했던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에 관한 문제는 종교개혁사에 있어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다. 문제는 종교개혁이 과연 인문교육을 포함한 학문적 발전을 이루도록 도왔는가 하는 것이다. 휴머니즘을 상징하는 에라스무스의 루터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양 진영 모두에 정통했고 양 진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필립 멜란히톤(Philip Melancthon)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가로서의 멜란히톤은 루터에 버금갈 정도로 프로테스탄트 최고의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13]. 그런 의미에서 그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멜란히톤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취임하던 1518년, 그의 취임연설에서 그는 자신을 인문주의자의 선구자로 제시하면서 중세기적 낡은 해석방법에서 벗어나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의 기초 위에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인문학이 신학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그는 “어학, 수사학, 역사학 등의 인문 교육을 통해 성경의 정확한 이해와 설교에 성경교육에 요구되는 전달력, 교회제도와 교리의 타당성에 대한 분별력을 배양하려고 시도”했다[14]. 그에게 있어서 교육은, 교회와 사회의 활동 영역이 따로 있어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聖)과 속(俗)의 구분이나 학문과 신앙의 구분과 같은 견해들을 거부하고 신앙적 삶과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건전한 시민의 육성과 건강한 신앙의 발전을 동시에 꾀하는 교육을 지향하였다[15].

교육에 대한 그의 이러한 철학은 성직자들을 위한 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개선하였다. 첫째는 양적인 증가를 들 수 있는데, 중세 말에 독일의 대학교육 이수비율은 모든 성직자를 포함하여 40% 미만이었으나 16세기 말에는 어느 도시에서는 그 비율이 90%에까지 육박할

정도로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성직자들이 대학을 졸업했다. 둘째는 교육의 질적인 개선이었다. 멜란히톤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성직자들에게 어학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 뿐만 아니라, 수사학과 역사학을 대학의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처럼 종교개혁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학문의 발전과 깊이를 더하게 하는데 일조함으로 인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다.

#### 2.5 결혼과 가정에 대한 입장

1523년에 님프센(Nimbschen) 지역의 수녀원에서 열두 명의 수녀들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 가운데 세 명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마땅히 갈 곳이 없었던 아홉 명은 마르틴 루터에게 도움을 청했다. 루터는 그 중 여덟 명에게 배우자를 찾아 연결해 줌으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었고, 1525년 6월 13일에는 끝까지 남아 루터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 아홉 번째 여인 카타리나(Katharina von Bora)와 결혼하였다[16]. 사실 중세시대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수도사와 수녀였고, 비록 결혼생활이 비난의 대상은 아니었을지라도 결혼을 개에게도 권하려 하지 않을 정도로 권장이나 선망의 대상은 더욱 아니었다[17]. 그러므로 이처럼 교회가 독신을 더욱 예찬하던 시대에서 더구나 성직자들이 결혼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루터의 결혼식은 많은 축하와 축복 속에서 진행되었다[18].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을 선택한 루터의 행동은 전통교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루터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서한」(1520)에서 감독은 합법적 아내 없이 살도록 강요될 것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오히려 순결을 서약하는 것은 복음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19]. 유명한 루터파 설교가였던 마테시우스(Johannes Mathesius)도 결혼은 신의 의도에 순응하는 것이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은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비로소 하늘과 땅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20]. 이처럼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가들은 결혼은 단순히 인간의 쾌

락을 위해 인간이 고안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신성한 제도이며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워가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해하였다. 결혼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더불어 결혼한 성직자들은 ‘사제’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자녀의 양육, 부부간의 갈등 등을 비롯한 보통의 가정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고통들에 대해 적절하게 조언하고,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랑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보다 더 넓은 역할들이 주어질 수 있었다[9].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노력과 주장은 실제적 개혁으로 구현되었다. 1525년에 취리히 결혼법령(Ehegerichtsordnung)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은 부적절한 동거관계를 유지하던 성직자들이 그 관계를 청산하거나 정식결혼을 하도록 하는 유럽 최초의 성직자 결혼 공인 법령이었다. 같은 해에 덴마크에서도 시정부가 인정한 성직자의 결혼사례가 있었으며, 1529년에는 프레드릭(Fredrik) 1세가 수도성직자의 결혼을 재가하기도 했다[21]. 칼 5세 역시 1548년에 이르러 프로테스탄트 성직자들의 결혼을 승인하였고, 1577년 신성로마제국에서는 성직자와 속인을 불문하고 동거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령이 선포되었다[22]. 당시로서는 새롭고 획기적이었던 이러한 주장과 제도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어떤 제도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그 당시 권장받거나 환영받지 못했던 결혼은 대중 속에서 봄으로 자리 잡았고 “가정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현세와 내세의 안녕을 보장하는 보금자리로 승격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9]. 따라서 중세기에 있었던 결혼과 가정에 대한 새로운 제도와 생활양식, 의식의 변화는 종교개혁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2.6 저항권에 대한 루터의 입장

칼슈타트가 이끌었던 급진적 종교개혁과 루터가 중심이 되었던 온건적 종교개혁 사이에는 양 진영의 공권력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었다. 칼슈타트와 같은 개혁진영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또 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뮌처(Thomas Müntzer)였다. 뮌처의 사상은 부와 권력이 평등한 천년왕국 사상으로, 대

단히 사회개혁적이어서 당시에 발생했던 농민들의 봉기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농민들의 봉기는 사회혁명으로 전개되었고, 급기야는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1524년 5월에 독일의 남부에서 시작된 농민전쟁으로 인해 약 1,000여 개의 성과 수도원이 파괴되었고 1526년까지 약 2년 여 동안에 7만 5천의 희생자를 가져왔다[23]. 이 과정에서 루터는 농민전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몇 개의 글로 표현하면서 파괴적이고 혁명적 전쟁 상황에 대해 제후들에게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그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외면했다는 윤리적 비판”과 더불어 “기득권에 안주하여 새로운 변화를 거부한 보수주의자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24]. 그러나 우리는 그의 많은 글들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그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25].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정병식(2012)은 1515년부터 1539년까지의 공권력과 저항권에 관한 루터의 글들을 분석한 후에 다음의 네 가지 스펙트럼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교회 내에서 저항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경우,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은 오히려 절대적 의무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정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법한 정부가 불의를 행할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동적이며 고난을 감내하는 저항도 필요하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시민이기도 하므로 적법한 정부를 불법으로 탈취한 대상에 대하여는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를 돕는다면, 그 황제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24]. 그런데 루터의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에서 발생했던 농민전쟁은 두 번째 스펙트럼과 관계된 것이었는데, 농민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인과 방화, 파괴 등을 일삼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장하며 통치 질서의 전복을 감행했기 때문이었다.

## 3. 루터의 사회복지 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발전시킨 사회복지정책

의 가장 큰 특징은 집중화(centralization), 합리화(rationalization), 평신도화(institutionalization)로 정리될 수 있다[26]. 이처럼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지 교회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개혁, 사회복지 개혁적 차원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종교개혁적 실천과 더불어 늘 함께 했던 주제는 바로 복지문제였다[2]. 루터의 사회복지 정책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호활동, 교육사업, 그리고 경제정책이었다.

### 3.1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돌봄

루터에게 있어서 곤경에 처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항상 즉각적인 관심과 실천의 대상이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돕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신앙의 과정이며 결과라고 보았다. 그는 “올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따르는데 신앙이 큰 사람은 행위가 크다”고 주장했다[27]. 루터가 비록 이신칭의론을 통하여 행함이 아닌 전적인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신앙과 행위의 관계는 사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루터에게 있어서 신앙이 없는 곳에는 선한 행함도 있을 수 없고, 선한 행함이 없는 곳에는 신앙도 있을 수 없었다[3]. 그래서 루터가 중세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여 주장했던 95개조 반박문에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43번부터 45번까지의 조항을 보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훨씬 더 나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그들을 돕지 않고 그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27].

이러한 루터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 원칙은 독일 뿐만 아니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게로 확산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정책으로서 복지사업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가운데 특별히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 역시 1571년부터 교회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과 병자들을 책임적으로 맡아 관리한

것을 시작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더욱 발전시켰다[2]. 이처럼 가난한 자들의 구호에 대한 루터의 이해는 다름 아닌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실천해야 할 자연스럽고도 자명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523년에 루터가 도입했던 라이스니히(Leisnig) 공동기금은 프로테스탄트의 궁핍한 자들을 위한 첫 번째 세금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이 시도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로 1530년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도시들 가운데 25개 이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한 규정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처럼 루터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가졌던 정책적 방향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종교적 갱신운동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 변혁적 개혁운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2 여성의 지위 변화와 교육 기회의 확대

종교개혁자들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새로운 주장과 실천은 단순히 대중의 긍정적 의식의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성직자들의 결혼이 합법화됨에 따라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애매모호한 동거녀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던 많은 여성들이 합법적인 성직자의 아내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했다. 실제로 성직자의 동거녀들과 그 자녀들이 종교개혁을 가장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더 나아가 성직자의 아내들은 새로운 영역에서 공식적인 역할들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저 성직자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도 지역 공동체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마을 소녀들의 교육을 담당하는가 하면, 빈민구호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28].

성직자 아내로서의 신분과 역할의 변화는 일반 대중 여성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여성들에게 교육기회의 확대로 나타났다. 모든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루터는 1520년 독일의 제후들에게 모든 마을에서 여아들이 독일어나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19]. 이같은 루터의 계속된 주장은 마침내 1533년 비텐베르크에 소녀들을 위한 학교(Mädchenschule)

가 설립됨으로 실현되었다. 그 이후부터는 독일의 루터파 지역에서 많은 여학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여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여교사들의 채용도 당연히 늘어나게 된 것도 여성의 역할이 증대된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당시 독일의 가톨릭 지역에서는 이러한 교육기관이 거의 없었음을 상기해보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교육기회의 확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29].

종교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에 대한 또 하나의 긍정적 특징은 여성의 이혼과 재혼의 조건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독신을 보다 더 좋고 중요한 것으로 강조했던 중세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부부관계의 결별에는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결혼관계의 영속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와 츠빙글리 등 종교개혁가들은 배우자의 간통은 이혼의 여지없는 이혼의 조건으로 간주하였으며, 더 나아가 재혼이 가능한 이혼을 인정하였다. 물론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괄목할만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혼과 재혼의 절차가 대단히 복잡했고 그 경우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불평등이 공공연히 존재하는 사회에서 종교개혁이 끼친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분명 큰 성과이며 공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이러한 사상의 변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과감하게 자신들의 신학적 견해를 공공연하게 표현하도록 했는데, 많은 여성들이 설교나 출판의 형태로 자신들의 주장을 공론화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공개적인 목소리를 높여서 적극적으로 개혁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독일의 카타리나 쉬츠 켈(Katharina Schütz Zell),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Argula von Grumbach), 마리 당티에르(Marie Dentiere) 등이 여기에 속하며, 같은 시기의 프랑스에서는 마가레타 당굴렘(Marguerite d'Angoulême), 잔 달브레(Jeanne d'Albret), 르네 드 프랑스(Renée de France) 등을 들 수 있다[30][31]. 물론 당시에 이러한 여성 개혁운동가들의 운명이 “그녀들의 지적수준이나 종교개혁적 가치가 아닌 성별에 의해 좌우”되었던 부분이 있고 같은 남성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도 많은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 3.3 공동체 의식의 발전

루터가 이끌었던 종교개혁의 기저에는 항상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 사랑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깔려 있었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써 강조되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이웃이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는 것을 본다면, 설령 내가 그들을 돕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난해지거나 더욱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재산의 손실과 아무런 몸의 위험 없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함께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32].

그리스도인의 공공의식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다른 한 가지는 당시에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발적 가난에 대한 의식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영적인 완전함에 이르는 방법으로 여겨서 수사들이나 신부들, 수도승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걸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루터는 그러한 구걸행위는 이웃 사랑실천의 반대적 개념이며 인간의 존엄성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한 자발적 거지들의 구걸하는 행태로 인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희생자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루터는 구걸행위를 폐지시키는 법안을 공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만들어 온전한 복지실천을 위한 법적 공동체가 실현될 것을 제안하였다[33].

사실 그의 이러한 주장과 노력이 사회 전반에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생각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 많은 의의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루터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한 의롭게 됨을 강조하면서도 그 믿음과 신앙의 발로로서 공동체를 돌보고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지를 깊이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신앙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실천적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 3.4 루터의 경제정책

일반적으로 루터는 대부분의 다른 면에 있어서는 개혁적이고 변혁적이었지만 유독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루터는 자신의 논문에서 의복의 사치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모든 신분에 어울리는 의복을 입으라고 권면한다. 그는 또한 음식의 과도한 남용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루터가 농업에 비해 상업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당시에 중세 교회가 사실상 고리대금을 하고 있었으며, 불의한 지주로서의 교회와 상업을 통하여 일확천금을 노리는 불법적인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는 만약 교회가 나서서 고리대금업을 한다면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루터는 사유재산을 자연적인 질서로 인정하면서도 그 재산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재산은 도움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분배되어야 하고 그럴 때에야 비로소 사유재산이 정의로울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루터는 또한 정부와 시장의 어느 편만을 인정하지 않고 이 둘의 고른 역할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이 독점이나 폭리, 사재기, 저울추를 속이는 부정직 등을 일삼아서는 안 되며 정부가 이런 죄악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루터는 1525년 <기독교인들은 모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십일조를 통한 단일세를 주장했다. 이는 루터는 십일조가 레위지와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루터는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보였는데, 검소하면서도 분수에 맞는 삶을 강조하면서 사유재산을 어떠한 방식으

로 축적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했음을 알 수 있다.

## III. 선교적 교회로서의 현대적 적용

### 1. 선교적 교회의 출현과 특징

최근 들어 교회 안에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가 대세다. 이후천(2016)은 자신의 선교사적 연구를 토대로 한국교회 선교역사의 패러다임을 넷으로 구분하였다[34]. 그에 따르면, 교회선교 1.0시대는 1920년대 이후의 시대로 초창기 기독교의 한국교회 정착시기를 의미하며, 한국교회의 양적성장을 이끄는 데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교회성장론이 교회선교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던 1970-80년대 이후까지를 교회선교 2.0시대, 1990년대 이후에 급속도로 교회 안에 퍼진 교회건강론의 시기는 교회선교 3.0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3년 이후부터 한국교회에 소개된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church)의 시기를 교회선교 4.0의 시대로 명명하면서, 지금의 시대가 선교적 교회론의 시대임을 주장했다. 학자들마다 그 시기적 구분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으나 이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 이후천의 이러한 구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사회개혁적 특징들을 현대 기독교에 적용하고자 하면서 선교적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교적 교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 2000년대 초반에 소개되었으나, 서구문화에서 이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였다. 선교적 교회는 예전에 국가적으로 기독교적 체제를 유지했던 나라들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세속화와 새로운 정신사조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더 이상 교회가 삶의 중심부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선교지와 같은 곳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직시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35]. 이것은 유형(有形)의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어떤 운동(movement) 혹은 이론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36]. 학자들에 따라서는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론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교적 교회로 통일하여 표현하기로 한다. Frost와 Hirsch(2013)는 서구사회의 다양한 선교적 교회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들을 근접공간, 공동 프로젝트, 영리 사업, 그리고 자생적 신앙공동체로 정리했다[37]. 첫째로 선교적 교회에서 의미하는 근접공간은 기독교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의미한다. 둘째로 공동프로젝트란,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교회공동체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어떠한 행사나 과제 등을 의미한다. 셋째로 영리사업은 선교적 교회가 지역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만족감을 채워줄 사업들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생적 신앙공동체란 위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적 혹은 사회적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인 채움까지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면서 단순히 봉사의 수준을 넘어선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가운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는 통전적 선교를 지향함을 알 수 있다[38].

## 2. 루터의 종교개혁과 선교적 교회의 공통점

이제 앞에서 살펴본 연구를 토대로, 루터의 종교개혁과 선교적 교회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이 둘의 출현배경은 사회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이 발발했던 그 시기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기였다. 사회적으로 빈부격차의 정도가 극심했고, 정치적으로 시민사회는 삶의 행복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정서적이고 영적인 평안함을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교회는 오히려 더욱 타락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처럼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종교적 문제를 포함하여 당시의 사회적 부조리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으로써 발생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모더니즘 사회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이전까지 사람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종교적 관심이 주변부로 밀려나 지역공동체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던 20세기 말에 등장하였다. 말하자면,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등장했고, 20세기말의 선교적 교회는 교회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시기에 등장했던 것이다.

둘째는, 방향성이다. 종교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변혁적 개혁의 방향성은 처음부터 교회가 아닌 사람이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종교개혁의 큰 신학적 사상이었던 이신칭의론과 만인사제설은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여 누구나가 다 신과의 자유로운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사상은 신앙약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의 가치를 확인하게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종교개혁의 사회개혁적 특징임을 살펴보았다. 선교적 교회 역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로 나가서 그곳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셋째는, 사역의 방법인데 활동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이다. 종교개혁은 결국 종교인들의 개혁이었고 그 종교와 사회, 정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노력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시작된 선교적 교회 역시 전달자의 입장이 아닌 개인과 수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상호 소통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둘이 가지는 기본적 구성요소들에 대한 것인데 종교개혁이 어떠한 배경과 목적에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한다면 그 속에서 기본적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회적 부조리와 극심한 빈부격차, 종교적 부패 속에서 이신칭의와 만인사제설의 신학적 교리를 근거로 하여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의 정화의 수준을 넘어선 사회개혁이었다.

표 1. 종교개혁과 선교적 교회의 공통점

	종교개혁	선교적 교회
출현 배경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한 생계위기, 종교적 부패, 사회적 지배계급과의 분쟁 등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선교적 난관에 봉착함
방향성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활동의 방법	사람과 지역사회	수용자 중심
기본 요소	지역공동체, 사회개혁	지역 공동체, 사람들의 영적인 행복추구

선교적 교회 역시 공동체적 특징을 가진 지역사회와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한 행복추구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3. 루터의 사회복지 개혁의 현대 기독교적 적용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대의 선교적 교회는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약자의 돌봄, 사회참여, 배움의 기회의 확대와 제공 등 사회개혁적 특징들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절한 토양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둘 사이에 몇 가지 공통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들의 접목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거된 공통적 가치들이 선교적 교회로의 적용을 더욱 수월하게 해주고 과거의 사실들이 현대적 삶에서 반성과 발전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특징들을 어떻게 선교적 교회가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3.1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적 책임 실천

칼슈타트와 토마스 뮌처를 중심으로 하는 급진적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발발한 농민들의 봉기가 이후에 전쟁이란 표현으로 대체될 만큼 그 과격성과 급진성 때문에 루터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루터의 마음은 항상 대중(大衆)에 있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신앙의 약자라든지 사회적 약자 그룹에 속하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루터의 특별한 옹호와 관심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오해를 받을 만큼 루터의 가장 큰 종교개혁적 특징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었다.

사실 종교개혁의 정점에서 발생했던 농민전쟁은 종교개혁과 별도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서로가 관련이

있다. 농민전쟁은 당시 중세기 봉건제도 아래에서 모든 인간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일반 농민들의 불만과 원한이 폭발했던 것이었는데, 이러한 봉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루터의 이신칭의론과 만인사제설 신학이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소중하다는 신념으로 당시의 전통적인 수직적 지배구조를 비판하고 평등과 자유를 부르짖었던 운동(movement)이기도 했다. 실제로 1525년 3월에 발표된 농민운동의 열두 개 조항 중 다섯 개(1, 2, 3, 10, 12조)가 교회와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결론부에서는 “성서를 근거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결정이자 최종적인 의견”이라고 마무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재는 잣대로 삼았다”[23][24].

이처럼 종교개혁이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21세기 선교적 교회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세기 이후로 뚜렷한 성장의 둔화를 보였던 교회적 현실에서 출현한 선교적 교회가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건물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매우 기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수용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가치로 삼았기 때문이다[36].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온전히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다[39].

정말로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 취약층을 도우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다음은 선교적 교회

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들이다. 첫째로, 교회다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건물과 장소로서의 교회가 아닌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이며, 끌어들이는 교회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찾아 나가는 정신이 필요하다. 둘째로, 신앙의 일상성 강조가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처한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려면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일상 영역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실천적 삶의 중요성이다. 중세교회의 문체는 제도적·신분적 특권의식에서 오는 차별화였음을 기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안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소비하는 것에서부터 삶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적으로는 지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병리적 현상과 수요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지역공동체와 물리적 공간을 나누는 실천적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로 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보다 실제적인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 3.2 교회의 올바른 실천적인 사회적 책임 이해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안에서 진보주의적 신학을 주장하는 소위 에큐메니칼 진영과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신학 진영 사이에서는 교회의 역할인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관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었다. 전자는 사회참여를 강조한 반면, 후자는 복음전도를 더 많이 강조해 왔던 까닭이다. 그러나 1974년에 있었던 로잔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를 통해서 기독교 선교는 어느 한쪽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복음전도와 사회참여 이 두 요소가 모두 기독교 선교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 둘은 독립적임과 동시에 서로 의존적인 것임을 확인했다.

신경규(2008)는 모로(A. Scott Moreau)의 구분을 사용하여 두 신학의 흐름의 차이를 다섯 가지로 설명했다[40]. 첫 번째는 오로지 복음전도(Evangelism)만 선교(Mission)라고 보는 입장으로 가장 보수적인 복음주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① M=Ev). 두 번째는 선교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Social Responsibility)를 모두 포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전도가 사회참여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입장이다(② M=Ev+SR (Ev>SR)). 세 번째는 주로 남미의 복음주의 선교신학자들과 일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선교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복음전도와 사회참여가 동일한 중요성을 지닌다는 입장이다(③ M=Ev+SR (Ev=SR))[41]. 네 번째는 선교가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면서도 사회참여가 복음전도보다 더욱 우선한다고 보는 입장이다(④ M=Ev+SR (Ev<SR)).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는 곧 사회참여라고 보는 극단적 입장이 있다(⑤ M=SR).

역사적으로 양극단에서 대립해 왔던 두 진영은 계속된 대화와 이해의 시도를 통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서로 공유하는 신학적 영역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교회의 선교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모두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이 둘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보는 세 번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넓게는 두 번째 영역 혹은 네 번째 영역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영역의 신학을 공유하는 학자들이 충분한 대화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기독교가 사회참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3.3 지역 공동체를 위한 실제적 복지 실천

오늘날 선교적 교회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실제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복지 실천이 필요하다. K-F. Daiber(1998)는 사회봉사를 온전히 실천하고자 하는 교회에 대해 세 가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교회의 선교는 이웃에 대한 사회봉사의 실천 없이는 그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 둘째, 누가 이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그 울타리를 넘어 다른 유관 단체들과 연합하여 수행해야 한다[42].

이러한 기본적 지침을 바탕으로 선교적 교회의 지역 사회 공동체를 위한 실제적 복지실천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지역사회의 효과적 복지선교를 위해서는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등과 같은 학문적 이론과 기술

을 온전히 습득하여 다양하고도 폭넓은 전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회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단순히 선교적인 목적으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루터의 종교개혁의 경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복지에 영향을 주는 현행 제도나 체제를 분석하고 사회악과 선의의 싸움을 통하여 공동체 내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시적 안목의 사회복지 모델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공동체와 협력적 연계성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라는 대상층 중심의 복지활동보다는 지역성(locality relevance)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43]. 이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정확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 주민의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문제해결의 과정에 참여하고 소통을 통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44].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의 신뢰성을 얻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효율성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넷째,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솔직하고도 비판적인 반성(Critical Reflection)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민감한 분별력(Sensibility)을 가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겸손하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고와 활동의 유연성(Flexibility)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투명한 행정과 솔선하고 모본이 되는 삶이 매우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IV. 결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종교

가 사회적 공신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종교는 사회적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사회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기를 부추기는 일에 일조하는 측면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역사적 모델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발생했던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 안의 부패와 모순, 성경신학적 문제들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성경과 초대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교회 안”만의 개혁이 아니었다. 그로 인해 시작된 종교개혁은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 사회복지개혁으로 이어졌고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다. 그것은 신앙에 의한 사랑의 실천운동, 구제의 실천의 전적인 운동이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종교개혁이 영향을 미쳤고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 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루터의 사회개혁적 시도가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은 현대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종교개혁자들도 자유롭지 못했다. 또한 도시 안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들을 위한 세금제도 등은 그 당시로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노력들이 오늘날의 개혁적 사회복지를 이끌어 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대 기독교는 이제 사랑의 실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루터의 기본적 원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동체를 위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 노력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Brunner(1931)가 말했던 “불이 탐으로써 존재 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는 이 말을 이제는 교회는 사랑의 실천으로 비로소 존재한다는 말로 바꾸어야 할 때이다[45].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이웃과 함께(with), 이웃 속에서(in), 이웃을 위해(for)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이영현, “크리스천 생활과 개혁정신,” *활천*, 제343권, pp.28-32, 1969.
- [2] 홍주민, “종교개혁과 디아코니아,” *신학연구*, 제46집, pp.256-296, 2004.
- [3] 김주한, “루터 종교개혁의 문화적인 의미,” *종교와 문화*, Vol.8, pp.163-182, 2002.
- [4] W. Delthey, “The Interpretation and analysis of man in the 15<sup>th</sup> and 16<sup>th</sup> centuries,” L. W. Spitz, ed., *The Reformation: Basic Interpretation*, Heath and Company, 1972.
- [5] 황대현, “종교개혁 공공영역과 독일 종교개혁 초기의 소통상황,” *서양사론*, 제97호, pp.117-141, 2008.
- [6] 홍주민, “16세기 유럽 사회복지 형성 과정에 나타난 개신교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연구,”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7권, 제2호, pp.221-253, 2007.
- [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brahamkoo&logNo=100192115621>.
- [8] J. A. Brundage, “Concubinage and Marriage in Medieval Canon Law,” *Sexual Practice and the Medieval Church*, ed. V. L. Boullough & J. Brundage, Buffalo, 1982.
- [9] 박준철, “변화와 지속: 종교개혁이 가정에 여성에 미친 영향,” *서양사론*, 제65호, pp.57-75, 2003.
- [10] V. L. Bullough, “Prostitution in the Later Middle Ages,” *Sexual Practice and the Medieval Church*, ed. V. L. Boullough & J. Brundage, Buffalo, 1982.
- [11]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6295>. 기독교연합신문, 1175호, (2012년 10월 10일자),
- [12] 홍지훈, “초기 비텐베르크 종교개혁에서 ‘신앙약자 보호’ 문제에 대한 루터와 칼슈타트의 논쟁,” *한국교회사학회지*, 제13집, pp.351-382, 2003.
- [13] 박준철, “르네상스 휴머니즘과 종교개혁의 관계,” *서양사론*, 제52권, 제1호, pp.1-31, 1997.
- [14] 정원래, “멜란히톤에게서의 신앙교육과 인문교육,” *성경과 신학*, 제75호, pp.145-175, 2015.
- [15] 이은선, *종교개혁자들 이야기*, 지민, 2013.
- [16] J. M. Kittelson, *Luther the Reformer: The Story of the Man and His Career*,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6.
- [17] S. Ozment, *When Fathers Ruled: Family History in Reformation Europ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18] L. W. Spitz, *The Protestant Reformation 1517-1559*, New York, 1985.
- [19] J. Dillenberger, ed.,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ew York, 1961.
- [20] S. Karant-Nunn, “Kinder, Küche, Kirche: Social Ideology in the Sermons of Johannes Mathesius,” *Germania Illustrata: Essays on Early Modern Germany Presented to Gerald Strauss*, A. C. Fix & S. C. Karant-Nunn, ed.,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92.
- [21] G. Jacobsen, “Women, Marriage, and Magisterial Reformation: The Case of Malmo, Denmark,” *Pietas et Societas: New Trends in Reformation Social History*, K. C. Session & P. N. Bebb, ed., Truman State Univ Press, 1985.
- [22] H. Wunder, *He is the Moon, She is the Sun: Women in Early Modern German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 [23] 칼 하인츠 츠어 필렌,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정병식·홍지훈 역, 대한기독교서회, 2003.
- [24] 정병식, “마틴 루터에 대한 윤리적 비판 재고찰,” *성경과 신학*, 제62권, pp.67-96, 2012.
- [25] 손규태, *개신교윤리사상사*, 대한기독교서회, 2001.
- [26] E. A. Mckee, *Diakonia in the Classical Tradition and Today*, Bakers, 1989.
- [27] M.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10, I, Weimar 1983.
- [28] S. C. Karant-Nunn, “The Reformation of

Women,” *Becoming Visible: Women in European History*, III, R. Bridenthal, S. M. Stuard, & M. E. Wiesner, ed., Houghton Mifflin, 1998.

[29] J. W. Zophy, “We must have the Dear Ladies: Martin Luther and Women,” P. N. Bebb, eds., *Pietas et Societas*, SCY Publishers, 1985.

[30] 박효근, “여성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사상과 그 사회적 적용,” *서양중세사연구*, 제30호, pp.255-291, 2012.

[31] 조용석, “16세기 프랑스 종교 개혁운동과 왕실 (귀족)여성,” *여성신학논문집*, 제10집, pp.47-72, 2013.

[32] M.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10, XXII, Weimar, 1983.

[33] 손규태, *마틴 루터의 신학과 윤리*, 서울, 2003.

[34] 이후천, 응답하라 선교적 교회론, *2016년 한국선교신학회 제1차 학술대회 논문집*, pp.18-31, 2016.

[35] 김선일, “선교적 교회의 패러다임에서 조망하는 교회학교 사역,” *복음과 선교*, 제17권, pp.9-38, 2012.

[36] 봉원영,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기업 이해: 선교적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호, pp.387-401, 2017.

[37] M. Frost & A. Hirsch,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Innovation and Mission for the 21st Century Church*, Baker, 2013.

[38] 이후천,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론의 접근 방법들에 대한 선교학적 고찰,” *선교와 신학*, 제30호, pp.49-74, 2012.

[39] 이상훈, “선교적 교회를 통한 목회 패러다임의 갱신,” *복음과 선교*, 제20집, pp.89-118, 2012.

[40] 신경규,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사회참여,” *대학과 선교*, 제14집, pp.249-293, 2008.

[41] A. S. Moreau, “Misison and misisions,” in A. S. Moreau,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world mission*, Baker, 2000.

[42] K. F. Daiber, *교회의 정체성과 사회봉사*, 황금봉

역, 한국 장로회 출판사, 1998.

[43] 김창기, 정재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Governance구축에 관한 연구: AHP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3호, pp.262-269, 2016.

[44] 심미승, “지역사회복지관점에서 로컬거버넌스 특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9호, pp.94-104, 2016.

[45] H. E. Brunner, *The Word and the World*, SCM Press, 1931.

#### 저 자 소 개

봉 원 영(Won Young Bong)

종신회원



- 1998년 2월 : 삼육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신학 석사)
- 2010년 5월 : 미국 Andrews University 신학과(목회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신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청소년, 리더십, 교육 콘텐츠